[UCI]I804:24011-200000238460

Collection @ chosun

2009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시아학과

후 홍 염

Collection @ chosun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비교연구

Economic development patterns in China and Russia on comparative studies

2009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시아학과

후 홍 염

Collection @ chosun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비교연구

지도교수 김 수 희

이 논문을 러시아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시아학과

후 홍 염

Collection @ chosun

후홍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임 홍 수 (인)

위 원 문 석 우 (인)

위 원 김 수 희 (인)

200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주의 유형 도입배경

제1절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배경

제2절 러시아의 자본주의 도입배경

제3장 자본주의 유형의 특징과 경제성장 실태

제1절 중국의 유형과 성장실태

제2절 러시아의 유형과 성장실태

제4장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따른 중국 · 러시아유형의 우위비교

제1절 환경적 요인에 따른 중국유형의 장단점

제2절 환경적 요인에 의한 러시아유형의 장단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3-1> 경제성장률 추이 ····· 25

<표 3-2> 산업별 성장률 추이 ····· 25

<표 3-3> 고정자산투자 추이 ····· 26

<표 3-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26

<표 3-5> 1인당 소득 추이 ····· 27

<표 3-6> 중국의 주요 물가 추이 ····· 27

<표 3-7> 중국의 주요 금융지표 ····· 28

<표 3-8> 위안화 환율 변화 추이 ····· 29

<표 3-9> 중국의 수출입 추이 ····· 30

<표 3-10>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 31

<표 3-11>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지표 ····· 38

<표 3-12> 업종별 성장률 지표 ····· 39

<표 3-13> 러시아 실업률 지표 ····· 40

<표 3-14> 러시아의 물가현황 ····· 41

<표 3-15> 러시아의 경제지표 ····· 42

<표 3-16>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지표····· 42

<표 3-17> 환율변화지표 ····· 43

<표 3-18> 자본순유입지표 ····· 44

<표 3-19> 2008년 상반기 금융금리 변화지표 ····· 44

<표 3-20> RTS 지수 대비지표 ····· 45

<표 3-21> 연도별 재정변화 지표 ····· 45

Collection @ chosun

<표 4-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추이 ····· 47

<표 4-2>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주요조치사항 ····· 50

<표 4-3> 중국의 외채관련 주요 지표 ····· 51

<표 4-4> 경제성장률 추이 ····· 53

<표 4-5>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 추이 ····· 55

<표 4-6>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 56

Collection @ chosun

ABSTRACT

Economic development patterns in China and Russia on comparative studies

Hou Hong Yan
Advisor : Prof. Kim, Soo-Hee
Department of Russia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the typ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and Russia. The theme of this study was selected as a remarkable difference was found in achievements because of their different executive procedures and methods of capitalism though both China and Russia which were defeated in competition of capitalism system introduced capitalism. It was judged that it was due to differences in politics, economy, social environment and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executive procedures and achievements between China and Russia though they introduced the same form of liberal capitalism.

This study will also present cautions when a less advanced socialist system uses advanced western capitalist system. For example, how was the strength of the blow China and Russia had in the economic crisis starting in the U.S.A. in 2008? Why did they have such a blow and where were the differences in blow they had derived from? According to the data presented in this study, Russia suffered more than China. It was a caution in its acceptance of globalism. Russia had rapid growth after president Putin came

Collection @ chosun

to power, but it had very strong blow when a global economic crisis occurr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excessive foreign capital in a short time. However, China could evade a crisis of liquidity by having more than two trillion dollars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and overcome it under conditions through increased domestic consumption. In addition, China was successful in attracting long-term foreign investments and mobilized home capital effectively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in contrast with economic achievements in Russia.

China has reinforced the competitive power of enterprises through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of innovation, 20 years, and raised the purchase power of its' citizens by four times. However, the purchase power of Russia decreased to a third because of weakened competitive power due to excessive weight of short-term speculative funds.

China has stuck to the ideas of socialism,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communist leadership, Max-Leninism and Mao Tsetung and maintained its political stability during the period of innovation. Therefore, China has maintained their controlling power to a certain line, taking a priority on construction of a wealthy China,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based on pragmatism, guaranteeing freedom of private enterprises, preventing an efflux of capital through Chinese government's currency controls. In contrast, as Russia introduced the principle of free democracy and almost complete market economic systems, which expanded freedom through guaranteed business activities and a multi-party system, it was compelled to satisfy the demand of the public and develop. Therefore, organized economic management was impossible because of weakened controlling power of the government and in addition, distortion of market function derived from administrative corruption impaired autonomous and effective development.

Finally, China has saved millions of citizens who were starving and impoverished through successful and steady economic growth. However, Russia was faced with 50% rise of poverty rate during the period innovation. China was able to build a base of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environment

Collection @ chosun

appropriate for job and business creation. In this way, China overcame inflation. However, Russia was characterized by its economic system centering on natural resources and barter rather than investment in manufacturing industry. So, now it needs an independent line. In particular, both China and Russia pursued socialism in the past and maintained rapid growth in economy, but what both countries showed as measures for economic innovation and against economic crises contrasted greatly.

Collection @ chosun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경제발전 모색은 자본주의의 기본유형 속에서 가능하며, 자본의 축적 가능성에 입각한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중국의 실용주의와 러시아의 서구화 노선에 따른 자본주의 개편으로 증명되었다. 경제발전에 효용성이 인정된 자본주의의 대표적 유형은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자본주의'이다. 시장자본주의는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됨에 따라 냉혹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서구 사회주의 정권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복지지향 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님으로써 산업국유화를 통한 부(富)의 공평한 분배정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실업증대와 경제적 효율성 저하로 보수정권과의 한시적 정권교체 상황에서 실행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Authoritarian Capitalism) 또는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유형이다. 과거 한국이 채택한 유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재개발국가들이 산업화를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택되는 모델이다. 과거 러시아에서도 일반성을 보인바 있으며, 중국의 실용주의의 본질이기도 하다. 문제는 21세기 개발독재가 통하는 비민주적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이 모델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흔들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러시아는 유가급등에 따른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세계 제3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연간 7%수준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정부주도형 개발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주요기업의 국유화가 확대되어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기업의 약 40%가 정부의

Collection @ chosun

직간접적 통제아래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러시아와 유사하다. 최근 산시(山西)성 벽돌공장 노예근로자들의 존재와 열악한 근무환경,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에도 불구하고 연간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업통제력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불량상품이나 호수오염을 이유로 수천 개의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언론과 반체제인사 탄압, 인터넷 통제,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경제성장 이후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묵살하며, 개발독재형 성장 우선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중이다.[1)]

본고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차별성 발견과 이의 채택이 불가피했던 배경, 그리고 보다 우월적이고 효율적인 방도를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토대로 산업후진국들에 발전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한다.

단순히 경제성장의 시각에서 보면, 양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경제발전의 성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경제 고속성장과 함께 경제 ·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두 나라의 경제발전유형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1)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신아사, 2009, pp. 211-212.

Collection @ chosun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경제발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첫째, 인력자원(노동공급량, 교육, 훈련, 노동동기 등), 둘째, 자연자원(토지, 광물, 연료, 기후 등), 셋째, 자본량(기계, 공장, 항만, 도로, 시설 등), 넷째, 기술진보(과학, 기술, 경영기법, 기업가정신 등), 다섯째, 국가 정책(경제활동의 자유, 사적인 자본축적), 여섯째, 국제관계 개선을 통한 개방, 시장, 국제적 조약 및 협정 등이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기준으로 삼으며, 이들을 토대로 나타난 특징을 범주화하여 유형을 정의한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소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 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Collection @ chosun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향하는 경제발전은 진보, 평화, 번영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발전으로 기본 인식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아울러 이의 장점은 첫째, 자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시장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부의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욕망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 본능이나 이기심을 자극하여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를 생산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선행 연구결론을 참고하여 새로 나온 데이터와 대조하고 종합적으로 귀납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양국의 경제발전 각 요건과 발전유형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의 차별과 상대적 우월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경제발전유형에 대한 비교의 결과를 토대삼아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지적하

Collection @ chosun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 경제발전유형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양국의 경제발전전략의 필요한 전제조건과 요인, 양국의 구체적인 경제발전유형, 양국이 경제발전유형을 전개한 후에 얻은 성과를 분류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비교의 결론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유형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종 결론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경제발전유형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래 경제발전전략을 제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안점이나 개선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제2장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주의 유형 도입배경

러시아와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新)국가자본주의'가 미국 중심의 서방자본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 신(新)국가자본주의는 전통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등의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자칫 국가 간 충돌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국가 주도형 기업 활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신국가자본주의가 세계 정치 경제 무대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기존 서방자본주의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표면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중국 정부는 2005년과 2006년 말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화공(시노펙)에 100억 위안(1위안=약 120원)과 50억 위안을 지원했다. 자국의 석유 제품 가격을 국제 거래가보다 싸게 통제하는 한편 해당 석유 업체의 적자는 국고에서 보전하는 조치였다. 중국의 석유회사들은 정부의 지원 자금을 활용, 지난 수년 동안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에서 유전 개발권을 사들이고 있다.[2)]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40여명의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초청, 대규모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들 기업의 에너지 사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석유기업 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한 돈 중 일부는 해외시장에서 끌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국제 주식시장에서 36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국영 상업은행 자금이 국영 기업 지원의 '탄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 투자에 직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중국은 인민은행(중앙은행) 산하에 '중국판 테마섹'인 중앙후이진투자공사를 설립, 1조 달러를 넘어선 외환 보유액

---

2) 양평섭, “급속히 커지는 대 중국 무역의존도”,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8.17, p. 7.

dCollection @ chosun

운용을 맡길 계획이다.

세계 금융 시장 및 산업계는 후이진 공사가 몰고 올 '차이나 달러의 위력'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국가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신국가자본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셸이 갖고 있던 '사할린 2'의 가스 유전 개발권을 국영 가즈쁘롬에 넘긴 것이다. 환경 보호를 이유로 내건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셸은 '가즈쁘롬'에 지분 50%를 넘겨야 했다. 블라디미르 뿌찐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벨로루시를 경유해 유럽으로 보내지는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을 2배 인상하자 벨로루시가 항의 조치로 유럽 지역으로의 송유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뿌찐 대통령은 자원 국유화를 통해 붕괴된 러시아 대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즈쁘롬사가 가스 수출을 독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에너지 산업의 국가 관리를 강화했다.

러시아 대기업들은 국제 자본 시장에 잇따라 진출, 주식을 공개해 막대한 외자를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중심 경제 체제에 대해 서방국가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EU(유럽연합)의 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는 냉전 시대에도 신뢰 불가능한 파트너였으나 이젠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서방 자본주의체제의 맹주국인 미국도 경계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과 수송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방 자본주의 체제가 러시아와 중국이 기획하고 있는 신국가자본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제1절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배경[3)]

1949년 10월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전통의 전제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 핍박받고 있는 '농민의 해방'과 국권회복을 기본 과제로 삼았다. 이 같은 기본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중국현실에 조화시킨 마오저뚱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독점적 리더십을 수행하는 체제를 공식화 하였다. 따라서 구체제의 문화 및 사회구조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며, 자료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대내외 정책들을 집행하였다. 이들 정책을 시대적 발전과 변화의 시각에서 살핀다.

첫 단계: 건국과 사회주의 건설기 (1949-76)

1. 건국과 사회주의체제 건설 기(1949-56)의 국내정치는 당국가체제의 건설(1954년 헌법)에 치중되었으며, 사회주의 개조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1953-1956)을 추진하였다.

대외정책은 소련 일변도 정책과 양대 진영론(阵营论)에 근거한 대회관계형성을 표출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중소우호동맹조약(1950), 한국전쟁 참전(1950-53), 아시아 아프리카회의(1955년의 반둥회의)[4)]에서 평화 5원칙[5)]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6)]

2. 중국적 사회주의의 모색기(1957-1966)에서는 중국공산당의 혁명적

---

3) 김수희, *op. cit.*, pp. 229-234.
4)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슬로건 하에 제3세계를 형성한 회의이다. 민족주의와 비동맹주의를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제3세력의 대두로 인해 지금까지 서구체제 중심의 유엔세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유엔에서의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력관계가 다극화되었다.
5) 주은래총리가 반동회의에서 천명하여, 1982년 중국헌법에 명시한 원칙으로서 이는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형화공존의 5개 원칙을 말한다.
6) http://www.eastasianstudies.org

Collection @ chosun

이상은 중국의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른 결과였다. 특히 소련이 강요한 스탈린 모델은 '공업화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점에서, 중국의 농업중심사회에 부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농업개발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중점을 둔 자력갱생목적의 인민공사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소련의 지원 거부로 시작된 외교적 불화가 이데올로기적 순수성 여부를 따지는 중-소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독자노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과로써 표출된 국내정치로는 대약진운동과 자력갱생(1958-1962)[7], 신경제정책과 지도부의 은폐된 노선투쟁(1962-1965)이 있었다. 대외정책은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논쟁과 중간지대론 천명, 원폭의 독자개발(1964), 미사일 IRBM 발사 성공(1966), 베트남전의 확산이었다.

3.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혼란과 정체기(1966-1976)로서 1965년부터 10년간 추진된 '문화대혁명'은 중국공산당의 이상실현에 토대가 되는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중국인들을 개조하여, 중국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대외적 지위상승과 더불어 세계와의 공존시대를 열고 있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표출된 국내정치는 문화대혁명의 폭발과 대혼란 초래(1966-1969), 임표의 몰락과 덩샤오핑 복권(1970-1973), 마오의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 심화(1973-1976)였다. 1976년 마오저뚱 사망으로 화궈펑(华国锋)은 최고 실력자가 됐지만 개혁노선을 추구하는 덩샤오핑에게 권력을 뺏기면서 1980년 총리에서 밀려났으며, 1981년 당주석 자리도 내주는 신세가 되었다.

대외정책은 반란의 성격을 지닌, 모방과 답습 상태로 머물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의 조반외교(照搬外交)에서 제3세계론(第三世界论)으로 전환, 중

7) 1966년 5월부터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 9월까지의 약 10년간 마오쩌둥이 중도한 극좌 사회주의 운동, 인민대중노선, 자본주의적 물질주의 타파, 지식인공격, 전통파와의 계급투쟁을 통해 마오쩌둥은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확고히 했지만, 사후에 극좌적 오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운동에서 보인 특징은 엘리트 집단에 의한 건설 방식이 아닌 대중노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소련과 구별된다.

Collection @ chosun

소 무력충돌(1969: 珍宝岛: 다만스키 사건), 유엔 가입(1971. 10), 미국과의 관계개선(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8)]

두 번째 단계: 개혁개방과 경제발전기 (1976-1991)

문화대혁명을 완전히 끝낸 것은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였다. 이 회의는 주로 '문화대혁명 기간 중의 좌경적 착오'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혁명을 주도한 마오저똥이 내린 지시와 결정이 무엇이든 옳다는 이른바 '량거판스'에 대한 오류판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의 토대 위에 앉아 있던 화궈펑(华国锋)이 무력화되고, 권력은 당 부주석 덩샤오핑[9)]으로 넘어갔다. 최고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1979년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네 곳에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1978년 12월에 시작된 개혁 · 개방정책에 대하여 30년이 지난 2008년 12월 18일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30주년 기념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1911년 군구 전제주의를 타도한 '신해혁명'과 1949년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를 타도한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반열에 1978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설한 '개혁개방'혁명을 올려놓았다.[10)]

한편 기대와는 달리 문화대혁명은 인민의 지지를 잃고, 지도층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대는 결국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 주도에 의

---

8) http://www.eastasianstudies.org

9) 중국 역사가들은 마오쩌둥을 '파(破)의 지도자', 덩샤오핑을 '입(立)의 지도자'로 부른다. 이념과 혁명에 치중한 마오와는 달리 덩이 국가 건설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은 20세 전후에 6년간 프랑스에서 근로유학생인 근공검학단(勤工俭学团)으로 생활하며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1974년 4월 중국부총리로서 중국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뉴욕과 인근지역을 시찰할 수 있었다. 그는 브로드웨이의 마천루와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후 "몇 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고, 아들의 미국유학을 권했다. 이어서 1978년 11월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의 발전상에 감명 받았으며, "외국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 싱가포르에서 배웠다"고 연설했다. (출처: *조선일보,* 만물상 "등소평과 개혁개방", 2008. 12. 20)

10) *조선일보,* "中 3대 혁명된 개혁개방 정책", 2008. 12. 19.

Collection @ chosun

한 '제2의 혁명'으로 평가되는 실용주의 혁명시대를 전개되었다. 따라서 경제특구 및 서방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 폭의 확대를 통한 협력체계를 보다 확대하였다.

1. 덩샤오핑(邓小平)정권과 역사적 노선전환기(1976-1984)의 이데올로기는 1977년 12월에 취임한 화궈펑(华国锋)의 범시론(凡是论)[11]과 덩샤오핑의 실천론(实践论)[12], 제3차 중앙위전체회의(三中全会议) 정신과 4항 기본원칙, 마오 사상(思想)의 재평가와 역사(役事) 결의를 표출시켰다. 이 시기의 국내정치는 덩샤오핑 중심의 반좌파(反左派) 연합세력의 집권당과 국가의 체제정비(1982년 당헌과 헌법), 간부의 혁명화, 연경화(年硬化), 지식화, 전문화, 즉 4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경제 사회정책은 선부론(先富论)[13] 과 경제발전 제일주의 농업생산책임제 확산과 인민공사의 와해, 4개 경제특구 설립(深圳, 珠海, 汕头, 厦门)이다. 대외 정책은 미국-일본 등 서방세계와의 국교정상화(1979), 중국과 베트남 전쟁(1979. 2), 중-소 우호동맹에 관한 조약폐기(1980)가 있었다.[14]

2. 개혁개방의 확대와 갈등의 심화기(1984-1989)에 덩샤오핑의 개혁은 경제에서, 특히 농업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마오저뚱 시대의 혁명적 상징인 인민공사가 사실상 해체되고 자영 농업제(自营农业制)가 확산되었다. 자영 농업제는 물질적 동기를 강조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연 평균 농산물 생산량의 5%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15]

공업부문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도입하고 이윤을 경영합리화의 기

---

11) 당시 두 개의 범시(凡是)가 일반화되었다. 일개의 凡是는 마오쩌둥 주석이 만든 정책을 우리들 모두가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고, 또 다른 凡是는 마오쩌둥 주석의 지시를 우리 모두가 언제나 결연히 따르는 것이다.

12) 실천론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의 토대로서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실천이다"라는 논리이며, 실용주의를 설득하는데 사용된 사자성어들은 첫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언덕만 오르면 된다"는 남파북파(南坡北坡)론이다.

13) 선부론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대외적인 접촉경험이 풍부한 동부연안지역에 대외경제와 관련된 특혜정책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14) http://www.eastasianstudies.org/

15) *Ibid*

Collection @ chosun

준으로 삼았으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혁명적 성향의 경영 인력을 전문가로 교체해 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 자원, 자본, 시장 등의 고질적 미성숙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더욱이 덩샤오핑의 개혁정책은 당내 저항세력과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해집단으로서 손실을 입은 집단의 저항을 받았다. 아울러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전개도 과감히 이루어졌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상품경제론, 마르크시즘과 부르주아 자유화에 대한 논쟁의 민주화, 민주화론과 신권위주의론 간의 논쟁으로 표출되었다. 국내 정치는 기술관료 계층의 제3세대 등장(1985년 임시당 대회), 민주화운동과 후야오방(胡耀邦) 실각(1986-1987), 조자양(赵紫阳)의 제한적 정치개혁 모색(1987년 당 대회)이 표출되었으며, 경제 및 사회적 정책은 도시지역의 경제체제개혁(1984), 청부 경영제와 기업파산법 시행, 14개 연해안 대도시와 해남성 추가 개방(1985)이 있었다. 대외 정치는 독립자주 외교노선(1982)에 의거 미국과의 전면적 협력,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개선(1989)에 성공하였다.[16]

3. 천안문사태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1989-1991)로 이어졌다. 우선 강대국 중국을 건설하고, 그 후 사회주의 혁명추진이란 정책노선을 소지하고 있는 덩샤오핑(邓小平)의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낙후된 경제력과 이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출현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1979년 3월에 4개의 이념적 지침을 하달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저똥의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원칙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쐐기인 동시에 사회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은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퇴조

16) *Ibid*

Collection @ chosun

와 몰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했다. 즉, 사회주의 정치체계의 변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전개였다. 이는 생산력의 발전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생산력 발전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조장하여, 정치적 문제를 극복하려던 덩샤오핑(邓小平)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1986년 지식인의 민주화 요구시위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성씨(姓氏)논쟁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평화적 이행론(移行论)의 위험과 중국적 특수성이 강조되었으며, 국내 정치에서는 장쩌민-이붕(江泽民-李鹏) 중심의 기술관료 정권 등장, 덩샤오핑(邓小平)을 비롯한 원로정치인 퇴진이 있었다. 경제 및 사회적 정책에서는 치이정돈(治理整顿)과 안정속의 개혁개방정책 지속이 있었다. 아울러 대외 정치에서는 독립자주외교와 반패권주의,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17]

17) *Ibid*

Collection @ chosun

제2절 러시아의 자본주의 도입배경

구소련의 붕괴 후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환경 제공에 실패함으로서 서구의 정치 및 경제적 모델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liberal-capitalism)문화가 세계적 자본주의 역량과 소비문화를 토대로 지배적 정치 및 경제적 모델이 되었다. 특히 초국가적 자본주의의 패권상황 전개와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혼란상황 속에서 폭넓게 접목될 수 있었다.

옐친은 1991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연방 인민대표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전의 뻬레스뜨로이까와는 다른 급진적 경제개혁의 의도를 나타냈다.[18] 또한 91년 중에 이후 경제개혁을 주도하게 될 가이다르[19] 경제팀에 의해서 경제개혁 정책의 골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초에 시작된 러시아의 개혁은 90%에 이르는 품목들의 가격통제 해제, 화폐의 평가절하, 그리고 GDP의 31%인 국가재정적자를 1992년 1/4분기 중 1.5%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1992년 1월의 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경제구조개혁 등의 급진적 경제개혁을 시작하게 된다.[20]

옐친의 경제개혁진영은 러시아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급진적인

---

18) 옐친은 이 연설에서 다소 불분명한 형태이지만 향후 추진하게 될 급진적 경제개혁의 기본구도를 언급했다. "...우리는 이제 경제의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업가와 기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얻은 결과들을 향유하게 해야 하며, 관료주의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개혁은 몇 가지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복합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안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와 재정, 신용정책이 실시될 것이며, 세금제도의 개혁과 루블화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방은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가격자유화 없는 시장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화로서 이는 강한 사유부문을 지닌 건강한 혼합경제를 의미합니다....." FBIS, Soviet Union, 29. 10. 1991, pp. 46-48.

19) 시당경제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진 가이다르는 옐친의 집권과 함께 총리가 되어 초기에 실시된 급진적 개혁정책의 실시를 주도했다.

20)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의 침체는 러시아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었으며, 1991년의 쿠데타로 인한 강경 보수파들의 몰락은 옐친의 개혁진영에 대한 정치적 저항세력의 일시적인 소멸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1992년 초 옐친진영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급진적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개혁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의 판단은 급진적인 자유화정책의 시행만이 시장 형성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재정안정화정책과 함께 가이다르 경제개혁정책의 근간이었다.[21] 가격자유화는 우유와 빵 등의 필수 식품,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몇 가지 중요 품목들을 제외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단행되었다. 1992년 3월 이후에는 비록 반독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몇몇 부분에 대한 가격통제가 지속되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가격통제가 해제되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이전의 체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제상황의 전개였으며, 급격한 물가상승국면이 이어졌다. 가격자유화 시행 직후 인플레이션은 245%에 달했다. 1992년 여름 이후 1994년의 겨울까지 인플레이션은 월 평균 20%를 넘었다. 따라서 1995년 인플레이션이 월 10%이하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이후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러시아인들은 초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졌다.[22] 또한 1992년 1월부터 상업 활동의 자유화 조치들이 발표되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상업 활동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무역의 자유화 속도는 이보다 늦어졌다. 그것은 아직 부분적인 가격통제(특히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무역의 자유화는 국내 자원분재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유화 조치들은 안정화정책에 의해서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었다. 안정화정책의 주요 방법으로는 재정과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국방비와 기업의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긴축재정책이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며,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도 엄격하게 운용했다.[23] 따라서 1992년 러시아개혁의 초기

---

21) 가이다르이 자유화정책에 대해서는 Yegor Gaidar & Karl Otto Pohl, *Russian Reform/ International Money*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2장 “Liberalization” 참조.

22) Cochrane, J. H. and Ickes, B. A., "Macroeconomics in Russia, E. D. Lazear," *Economic Tt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Hoover Institute Press,1995), pp. 69-70.

23) 가이다르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했다. 첫째는 군사부문의 지출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이다르는 군사부문의 발주를 70% 감축시키기로 결정했다. 둘째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었다. 가이다르는 1991년 말 GDP에의 15%에 달했던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산물이었던 보조금의 삭감은 타성에 젖어 있던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

Collection @ chosun

몇 달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24]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주요 이유는 구체제의 저항 때문이었다.[25] 가이다르는 1992년 5월 자신의 충격요법에서 후퇴했다. 1992년 후반부에 들어서 정부 지출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재정상태의 개선속도도 둔화되었다.[26] 결과적으로 발생한 초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고,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외로부터의 투자를 약화시켰으며, 신용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7]

1992년 여름 옐친의 개혁진영은 대규모의 사유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도 사유화의 조치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체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2년 10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유화(mass voucher program)가 실시되었다.[28] 이와 같은 대중적인 사유화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1994년 7월까지 모든 공업부문과

나 가이다르는 이를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이다르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1992년 6월 2일 28%라는 높은 세율의 부가세를 도입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던 중앙은행을 보다 긴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통화량의 팽창을 막으려 시도했다. Yegor Gaidar & Karl Otto Pohl, *Russian Reform/ International Money*, pp. 29-35.

24) 가이다르는 이를 다소 과장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재정상태의 개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1992년 첫번째 몇 달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0%에서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축소되었다.” *Ibid*, p. 32.

25) 이미 1992년 5월과 6월에 가이다르는 개혁을 초기의 형태로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순수한 경제적 요소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었다. 경제개혁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군수품 조달물량을 삭감함으로써 발해하는 군산복 합체들의 저항, 보조금 삭감에 대한 농업부문의 로비, 긴축통화 정책과 세금인상에 대한 공업부문의 저항, 투자축소 문제, 예산지출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제의 저항에 있어서 공산주의 세력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의회는 국유기업들의 주요 로비경로로 이용되었다. *Ibid*, pp. 36-37.

26) 1992년 2/4분기 중 재정적자는 GDP의 11%로, 3/4분기 중에는 15%로 늘어났으며, 통화관리의 균형도 잠시 당했다. 1992년 6월까지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은 700억 루블이었으나 10월에는 4조 루블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은 200%에 이르렀고 따라서 가각통제 해제의 진행과정을 왜곡하고 약화시켰다.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수반되지 않은 미시경제의 자유화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웠다.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77-278. 참조.

27) T. Colton,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No. 13(1997). p. 16.

28) 바우처 사유화는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정도의 금액(1인당 만 루블)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무상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서 해당금액 만큼의 기업과 국유재산의 주식이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중적 방식의 사유화이다.

Collection @ chosun

서비스산업의 70%가 사유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급속한 사유화는 의도했던 효과가 가져오지 못했다. 양적인 사유화의 성공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유화된 기업의 절반가량이 이윤을 내지 못했으며, 러시아 공업생산력의 50%가 감소했다. 또한 국가소유체제의 해체는 경제의 범죄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1992년 초기 가이다르 경제팀의 자유화 · 안정화 · 사유화를 위한 급진적 개혁조치들은 의도했던 결과들을 얻지 못했다. 개혁효과가 거시화 되지 않자 국민 불만의 증폭을 배경으로 반대파들의 저항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가이다르 총리체제는 개혁에 대해서 보다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체르노메르딘[29]체제로 교체되었다. 당시 옐친정부는 체르노메르딘을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개혁의 완급을 조정하는 '관리형'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즈쁘롬'의 대표를 총리에 임명함으로써 거대 국유산업 등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 했던 의도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현재까지 체르노메르딘체제는 전반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개혁정책의 집행은 완만하게 시행하고 있다.

체르노메르진 총리의 등장에 따라서 가이다르식의 급진적 개혁은 사실상 끝나게 되고, 오히려 일부영역에서는 긴축기조를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산업부문들에 대한 정부대출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임금인상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대국민 선심용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화폐발행을 남발했다. 이는 안정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상정되었던 통화팽창 억제조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3년 7월에는 화폐개혁이 단행되었으며, 8월에는 '개혁의 발전과 러시아경제의 안전화안'을 채택하여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안은 경제

29) 총리로서 1995년부터 『우리 집 러시아』당을 이끌고 있는 체르노메르딘은 경제 관료의 길을 충실히 걸어왔으며, 따라서 개혁에 대해서 점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체르노메르딘은 1986-1990년 사이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니콜라이 루지코프 정부에서 석유-가스 산업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야블린스키의 급진적인 시장경제체제 도입계획 '500일 계획'에 반대했다. The Moscow News, No.35 (September 8-14, 1995). 체르노메르딘은 1989년 이후부터 러시아 최대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즈쁘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1)국영 및 지방자치체소유 기업의 사유화, 2)방위산업 채권발행의 조건 변경, 3)자원의 국가분재체제, 예비금적립, 국가주문 및 지정가격의 폐지, 4)시장구조 및 운영원리에 입각한 생산기자재 판매시장의 형성, 5)독점의 폐지와 자본주의 방식에 따른 상품의 자유판매, 6)엄격한 금융정책, 7)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인 세원확보, 8)대외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개방, 9)가격의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30] 1994년 7월에는 제2차 사유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내부자 사유화(insider privatization)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는 개선되지 못했다.[31]

러시아 정부는 1995년 3월 새로운 3개년 경제개혁프로그램을 확정했는데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투자촉진, 그리고 생산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중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는 것으로서, 1992년 가이다르 총리내각의 급진적인 경제개혁프로그램, 1993년 말 긴축환화 프로그램 이후의 세 번째 개혁프로그램이었다. 이는 1993년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결국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긴축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32]

---

30) "1991-1993년도 러시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결과," 「러시아연구」No. 2(서울: 대륙연구소, 1994), pp. 181-182. 이와 같은 체르노메르딘의 경제정책안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1단계는 1994년 상반기까지로 가격통제의 범위를 GDP의 3-5%로 축소, 국가구매는 20%선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재정적자도 GDP의 8-10%로, 인플레이션은 월 5-7%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었다. 안정기인 2단계는 1994년 하반기부터 1995년까지이며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대규모사유화의 주요목표달성, 효율적인 금융제도의 도입 등이 목표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는 성상기로 잡혀 있었다. 이창제, "러시아 경제체제전환 시도에 대한 평가,"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서울: 열린책들, 1994, p. 121.

31) 1994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부의 공동보고서는 1991-1993년간의 개혁이 실패로 귀결괴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은 실패했다. 상정된 개혁의 목적과 정부의 예측 중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둘째, 경제 붕괴로 연결되는 경향이 생겨나 강화되어 가고 있다. 셋째, 안정화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개혁의 선택노선 및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가격자유화와 재정안정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러시아 과학아카제미 경제부,*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 상황과 새로운 접근법," 서울: 열린책들, 2004, pp. 253-254.

32) 이 프로그램은 IMF로 부터의 차관도입(차관은 인플레이션의 유발 없이 러시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안정화정책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다), 민간투자촉진, 투기

Collection @ chosun

1996년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다소간의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이유는 6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가 개혁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도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업분야의 이익집단들은 보호주의무역과 국가보조금 지급을 원한 반면, 금융 분야의 이익집단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원했다. 따라서 개혁의 효율성보다는 재선을 위한 대국민 선심성 공약이 우선되었고, 산업분야의 이익집단들과 금융 분야의 이익집단들의 긴장관계는 일관성이 있는 경제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33]

경제개혁조치들로 인해 1995년의 경우 러시아 GDP 3/5이상[34] 혹은 55%[35]가 비 국유부문으로부터 산출되었다. 또한 1995년 말과 1996 초에 걸쳐서 러시아가 체제전환기에 발생하는 경기 하강국면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했으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빈곤선 이하의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33%에서 25%이하로 감소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12%에서 -19%까지 하락했던 GDP의 하락추세도 1996년에는 전년대비 -3%로 추산되는 등 점차 안정추세를 나타냈으며, 초 인플레이션도 안정되었다. 또한 루블화와 경화와의 교환비율이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1996년 1월에서 8월까지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수입은 12%증가했으나 실제 소비는 이보다 작았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저축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1995년과 1996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매우 긴축적이었으며, 인플레이션은 매월 1%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IMF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수치이다.[36]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 경제개혁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제한되어진다.[37]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비

성 자금의 산업자본화, 세금제도의 간소화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이철원, “러시아의 최근 경제현황,” 『지역경제』, 1995. 5, pp. 87-88.

33) Peter Rutland, "Another Lost Year for the Economy," *Transition,* No, 7(February, 1997), pp. 78-81. 참조

34) 러시아 측의 통계.

35)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통계.

36) Colton, T.,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pp. 14-17.

Collection @ chosun

경제적인 문제들은 정치적 불안과 범죄, 그리고 부패 등을 들 수 있으며, 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경제의 국제적인 신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1995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총투자의 2.8%에 그쳤다. 경제적인 문제들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첫째로 러시아의 GDP는 1989년에서 1996년 중반까지 약 48%가 하락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다는 점이다. 1996년 중반기의 소비자 가격지수는 1995년 중반에 비해서 50%정도 높았다. 셋째, 대규모 사유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1994년 말까지 러시아의 공업부문 노동자의 83%가 정부가 일부의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화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38] 넷째, 산업부문간의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따라서 생산부문인 농업과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 감소한 반면,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국내거래, 기타 서비스부문의 비율은 급증했다.[39] 다섯째, 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

37)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이나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보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기타 아시아의 CIS권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P. Hanson, "What Sort of Capitalism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9, No. 1(1997), pp. 27-29.

38) 사유화 실시 이후 대다수의 기업들은 해당기업의 노동자와 지배인들에게 주식의 51%를 소유하게 허용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는 기업사유화의 지배적인 형태가 내부자 사유화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명목상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통제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배인들에 의해서 행사되었다. 이와 같은 내부자사유화는 사유화의 중요한 목표인 경제구조재현과 외국자본의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새롭게 형성된 시장압력하에서 상당수 기업의 경영진들이 신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렸으며, 노동자와 기업지배인들의 공동소 유형태 비율도 작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6년 초까지도 러시아의 대다수 기업들은 내부자사유화로 인한 부정적 경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Colton, T.,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p. 17.

39) 이와 같은 점들은 러시아에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 상당 정도 기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개혁초기부터 매점매석과 중개차익을 노리는 경제행위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생산부분의 잠재력을 잠식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6월에서 1993연 4월간의 은행대출실적에 따르면 생산부분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간거래를 위한 대출은 45%에서 75%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Vladimir Kollantai,"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Collection @ chosun

변화와 실업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질임금의 하향화와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료들의 부패는 만성화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옐친 체제의 무능과 부패로 가중된 제적 고난이 공산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부상시킴에 따라 러시아 풍토에 맞는 자주노선을 모색하게 되었다.

(London: Macmillian, 1995), p. 389.

dCollection @ chosun

제3장 자본주의 유형의 특징과 경제성장 실태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이 가능하다. 소비재는 물론 자본재에 대해서도 그 사적 소유와 자유처분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두 번째로 자유경쟁주의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가능하다.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가 허용되어 소비선택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리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환경제, 시장경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사유재산제도가 기본이 되어 모든 재화는 상품으로 생산되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교환되고 그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이 시장에서 결정돼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2대 계급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하고, 자본가는 이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이루고 있다. 즉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인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시장에서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을 통해서 최대의 이윤획득을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제체제라 하겠다.

Collection @ chosun

제1절 중국의 자본주의유형과 성장실태

1. 중국의 국가주도 및 시장혼합형 자본주의

중국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2년에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만 시장이 자원배분에 대해 기본적인 작용을 하며 국유와 사유가 결합된 다양한 소유구조가 존재하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중국 경제 현실의 모습을 부문별로 살펴보겠다.

1)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

우선 중국에서 시장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중국 경제체제는 기본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을 중앙계획 대신 시장에 맡기고 있다. '92년 이후 경제에서 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까지 소비재의 95%이상, 농산품과 생산재도 각각 94%, 88%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되었다. 현재 극소수의 상품만이 계획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노동시장의 경우 국가가 일자리를 나누어주는 제도는 폐지되었고 이후 신규 종업원에 대한 노동계약제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었다.

2) 사유화가 진전된 기업 소유구조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개방화 이후 모든 생산주체는 국유 또는 공유기업이었으나 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사영기업을 합법화 하였다. 93년 이후 본격적인 소유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국방 관련 기업 등 국유독자회사로 개조된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일부 주식을 국가가 소유하며 나머지 주식은 사유화된 큰 의미의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3) 공산당의 경제 개입

Collection @ chosun

중국에서 공산당은 유일한 정치세력이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공산당에 기초를 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은 당정부기관, 국유기업, 공적사업단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은행 대출, 기업 매각, 상장 등의 결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중국경제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크게 진전된 상태이며 크게 보아 시장경제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중국경제의 독특성으로써 첫째, 여전히 국유 내지 공유 부문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국유 기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 둘째 통치 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공산당이 경제에 개입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40]

40) 김시중, “중국경제 얼마나 독특한가?” 『경제학 연구』, 200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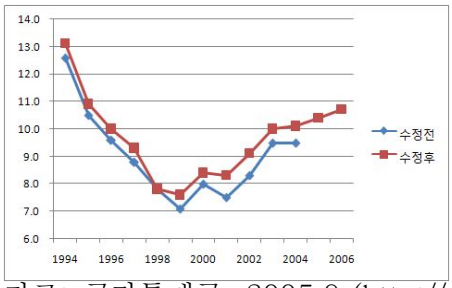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2. 중국의 경제성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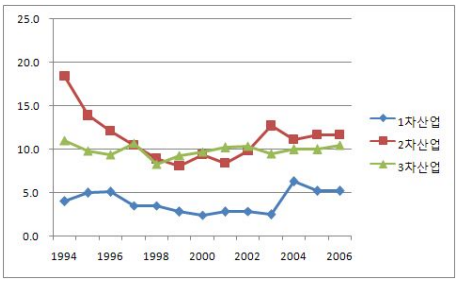
1) 중국경제 10.7% 성장

2007년 중국경제는 수출호조, 지속적인 투자 및 소비 확대로 4년 연속 10%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중국의 GDP는 24조 6,619억 위안(약 3조 2,407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여 5년 연속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6년 1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7년 1분기 11.1%, 2분기 11.9%, 3분기 11.5%, 4분기 11.2%로 2007년 증가세가 3분기부터 소폭 둔화되었다. 산업별 성장률은 1차 산업 5.0%, 2차 산업 12.5%, 3차 산업 10.3%를 기록한다.

<표 3-1> 경제성장률 추이



<표 3-2> 산업별 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2005.9.(http://www.mofcom.gov.cn)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2%p 하락하였다. 중국 정부의 투자억제 정책으로 2006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2%p 하락한 24%증가했으나, 연초 목표치 대비 6%p 높은 수준 유지하였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04년 26.8%, 05년 26.0%, 06년 24.0%로 '11·5 계획' 실시 첫해였던 2006년 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는 9조 3,47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7%p 하락한 24.5%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0.5%p 상승한 19.9% 증가하였다. 신 농촌 운동 건설을 위한 농촌지역에의 투자 확대노력과 도·농간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chosun

<표 3-3> 고정자산투자 추이

(억 위안, %)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43,500 (16.9)	55,567 (27.7)	70,477 (25.8)	88,774 (26.0)	109,870 (24.0)
도시	35,489	45,812	59,028	75,095	93,472
농촌	8,011	9,755	11,449	13,679	16,398

자료 :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신화사, 2007.1.25.

2006년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7조 6,4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0.8%p 상승한 13.7% 증가하였다. 중국 국내소비 증가율은 04년 13.3%, 05년 12.9%, 06년 13.7%이었다.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36.2%), 자동차(26.3%), 건축자재(24%), 통신설비(22%)를 기록하였다.

<표 3-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억 위안)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총생산(GDP)	120,333	135,823	159,878	183,868*	209,407
경제성장률(%)	9.1	10.0	10.1	10.4*	10.7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6.9	27.7	26.8	26.0	24.0
국내소비 증가율(%)	11.8	9.1	13.3	12.9	13.7
실업률(%)	4.0	4.3	4.2	4.2	4.1

주 : *는 2007년 1월 24일 발표된 최종 수정치로서 2006년 8월 30일에 발표된 수정치인 10.2%보다 0.2%p 상향조정

자료 :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신화사, 2007.1.25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이상 국가로 진입하였다. 2006년 1인당 GDP

dCollection @ chosun

는 약 16,015위안으로 달러로 환산해 약 2,047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실업률이 4.1%로 0.1%p 하락하는 등 취업 기회의 증가로 도시지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11,759위안, 농촌 1인당 순소득은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3.3배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 3-5> 1인당 소득 추이

(위안)

	2002	2003	2004	2005	2006
1인당 GDP	9,398	10,542	12,336	14,062*	16,015*
1인당 도시가처분소득(A)	7,703	8,472	9,422	10,493	11,759
1인당 농촌순수입(B)	2,476	2,622	2,936	3,255	3,587
A/B	3.1	3.2	3.2	3.2	3.3

주 : *는 추정치

자료 : 국가통계국, 신화사, 2007.1.25

소비자물가 지속 안정세 유지한다. 2006년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의 안정세, 원자재·연료 구입가격 상승의 둔화에 따른 공산품출하가격 상승세 둔화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1.5%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년 3.9%, 05년 1.8%, 06년 1.5%이었다.

<표 3-6> 중국의 주요 물가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비자물가(CPI) (식료품가격 상승률, %)	-0.8 (-0.6)	1.2 (3.4)	3.9 (9.9)	1.8 (2.9)	1.5 (2.3)
원자재, 연료구입가격(%)	-2.3	4.8	11.4	8.3	6.0

dCollection @ chosun

공산품출하가격(%)	−2.2	2.3	6.1	4.9	3.0
고정자산투자가격(%)	0.2	2.2	5.6	1.6	1.5

자료 : 국가통계국, 신화사, 2007.1.25

2) 안정적 금융 운영

2006년 금융긴축정책으로 총통화 증가율 소폭 둔화하였다. 2006년의 총통화(M2) 공급량은 34조 5,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해 소폭 둔화되긴 했으나 연초 목표치를 0.9%p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M1(현금 및 요구불예금 등)의 공급량은 12조 6,000억 위안, M0(시중현금)은 2조 7,1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17.5%, 12.7% 증가하였으며, 2006년 말 외환보유액은 무역흑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2005년보다 2,474억 달러 증가한 1조 6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중국은 2006년 2월 8,536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자리 잡다.

<표 3-7> 중국의 주요 금융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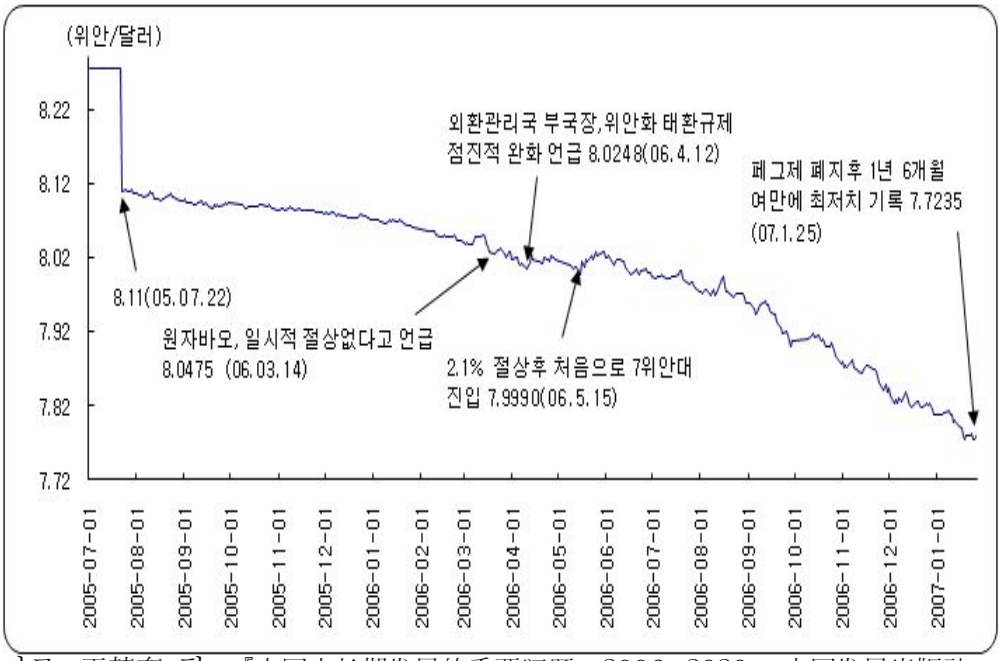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통화(조 위안) (증가율, %)	18.5 (16.8)	22.1 (19.6)	25.3 (14.6)	29.9 (17.6)	34.6 (16.9)
외환보유고(억 달러) (증가율, %)	2,864 (35.0)	4,033 (40.8)	6,099 (51.2)	8,189 (34.3)	10,663 (30.2)

자료 :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2007.5.24. 중국인민은행, 2006 및 국가외환관리국,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Collection @ chosun

위안화 환율, 달러당 7위안 대 진입하였다.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환율개혁이후 탄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2006년 5월 15일 7.9990위안/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7위안 대 진입하였다.

<표 3-8> 위안화 환율 변화 추이



자료: 王梦奎 편, 『中国中长期发展的重要问题：2006~2020』,中国发展出版社, 2007, p. 42.

3) 교역 및 투자 증가

2006년 중국 교역규모 5년 연속 20% 이상 성장 지속해 왔으며, 2006년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1조 7,606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해 5년 연속 20%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였다.

2006년 중국의 교역규모는 2005년에 비해 3,387억 8,000만 달러 증가해 1998년 한해의 교역규모를 초과하였고 수출은 9,691억 달러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27.2% 증가, 수입은 7,916억 달러로 전년대비 2.4%p 상승

Collection @ chosun

한 20%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1,775억 달러의 무역흑자 기록하였다. 2006년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이 5,494억 달러로 28.8% 증가(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을 1.6%p 상회), 중국 전체 수출의 56.7%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기계설비의 수출이 1,866억 달러로 24.7%증가했으며, 전기 및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2,275억 달러로 32% 증가하였다.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액은 2,815억 달러로 29% 증가해 중국 전체 수출증가율을 1.8%p 상회하였다.

<표 3-9> 중국의 수출입 추이

(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교역 (증가율, %)	6,209 (21.8)	8,515 (37.2)	11,544 (35.6)	14,225 (23.2)	17,607 (23.8)
수출 (증가율, %)	3,256 (22.1)	4,385 (34.6)	5,936 (35.4)	7,623 (28.4)	9,691 (27.2%)
수입 (증가율, %)	2,953 (21.2)	4,131 (39.9)	5,608 (35.8)	6,602 (17.7)	7,916 (20%)
무역수지	303	254	328	1,021	1,775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통계(http://www.mofcom.gov.cn), 2006

외국인직접투자 소폭 증가한다. 2006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계약 승인 건수는 41,473건(전년대비 5.8% 감소), 투자 금액은 630억 달러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2006년 한국은 중국의 4위 투자국이 되었다. 홍콩(202.3억 달러), 버진아일랜드(112.5억 달러), 일본(46억 달러), 한국(38.9억 달러), 미국(28.7억 달러), 싱가포르(22.6억 달러), 대만(21.4억 달러), 케이만 군도(21억 달러), 독일(19.8억 달러), 사모아(15.4억 달러), 2006년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4,262건, 38.9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0.3%, 24.6% 감소해 2005년 감소세로 전환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 유지하였다.

Collection @ chosun

한국의 대중국 투자 증가율 추이(중국 상무부통계 기준)는 02년 26.4%, 03년 65%, 04년 39.8%, 05년 17.3%, 06년 24.6%이었다.

<표 3-10>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계약건수 (증가율, %)	34,171 (30.7)	41,081 (20.2)	43,664 (6.3)	44,001 (0.8)	41,473 (-5.8)
계약액 (증가율, %)	828 (19.6)	1,151 (39.0)	1,535 (33.4)	-	-
실행액 (증가율, %)	527 (12.5)	535 (1.4)	606 (13.3)	603 (-0.5)	630 (4.5)

자료 : 중국 상무부, 인민은행, 중국 해관통계(http://www.mofcom.gov.cn), 2006

2006년 금액기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하긴 했으나, 중국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입 제한 및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2007년에는 500억 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최근 외국인투자 기업의 중국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중국정부가 '하이테크 기술과 고부가가치' 위주로 선별 유치하여 투자 감소세[41]이었다.

41) 이승신, "2006년 중국경제 발전현황 및 평가", 『중국경제 동향 보고』, 2007.1.26, pp. 1-7.

Collection @ chosun

제2절 러시아의 유형과 성장실태

1. 러시아의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러시아에서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노선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프리마코프 내각에서 경제위기 탈출방안이 나오면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경제위기 탈출방안[42)]

러시아에서 1998년의 경제위기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그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순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가재정과 은행시스템의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1998년 9월 이후 등장한 프리마코프 내각은 재정과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안하였다.

가. 재정개혁

국가의 정상적 기능은 건전한 재정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주도 자본주의 노선의 성패는 사실 재정안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 7월에 러시아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Tax Code) 1부의 수정안은 국세청(Ministry of Taxation)의 하급 세무서에 대한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탈세기업의 금융장부를 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연체된 세금에 대한 이자액 및 이자율 상한선을 철폐하며, 세금고지서의 위조,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로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42) 정여천, "한 · 러 경제교류 10년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 32-35.

Collection @ chosun

확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서 1999년 하반기부터는 개별 조세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조세의 종류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운데, 특히 물품세 및 영업세의 폐지를 통해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각종 과세특례를 대폭 줄여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러시아 재정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지방 사이의 세수의 분할, 지방재정에 대한 교부금 및 보조금 지급규칙, 연방 및 지방 징세기관간의 관계설정에 이르기까지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와 관련된 모든 제도의 정비가 포함된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재정규율의 해이는 지금까지 연방재정보다는 지방재정에서 훨씬 심각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에서의 재정연방주의 제도가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뿌찐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원 자동임명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위 확보 방향으로 연방 제도를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연방주의의 확립이 결국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9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의 국가재정은 세수실적과 재정수지 면에서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산업생산의 회복에 따른 기업조세 징수실적의 증대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출관세 및 물품세의 세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서, 재정부문 개혁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나. 금융개혁

러시아 정부의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1998년 말에 발표된 은행구조 조정안이었다. 여기서 러시아 정부는 1,400여 개에 달하는 국내은행들을, ① 독자적인 회생이 가능한 우량은행, ② 도산되어야 할 부실은행, ③ 약간의 정부지원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은행, ④ 도산할 경우 정치·경제적인 파장이 크므로 선택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전국규모의 대형은행 등 4개의 범주로

Collection @ chosun

나누고, 각각의 범주에 상응하는 지원 또는 파산절차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구조 조정안은 우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더욱이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은행의 파산에 대한 법적인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구조 조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았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진척된 것은 1999년에 들어서였다. 1999년 초에 금융기관구조조정청(ARCO: Agency for Reconstruction of Credit Institutes)이 발족되었으며, 이어 은행파산법(The Bank Bankruptcy Law)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부실은행의 파산절차가 법제화되었다. 1999년 7월에는 은행구조조정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ARCO에 은행구조조정을 실행할 권한이 정식으로 위임되었고,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ARCO에 부실은행의 자산을 이관할 수 있게 하였으며, ARCO는 부실은행에 대해 주주지분의 감자(write-down)를 행하거나, 상업은행들의 불법적인 결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등의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중앙은행은 1999년 중반부터 부실은행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여 최근까지 100개 이상의 은행들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구조조정안은 1999년에 상당한 정도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획된 대로 과감하게 실행되지 못했으며, 1999년 중반부터 시작된 부실은행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조치에 있어서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은행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최근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채 법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에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재정자금의 부족과 정치권과 유착된 은행권의 로비, 모호한 대규모 상업은행들의 소유구조 등이다. 특히 재정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1999년에 은행권 구조조정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ARCO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다. 산업정책의 강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의 강화로 나타난다.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러시아 국내에서는 제조업의 회생이 산업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 1998년 9월에 출범한 프리마코프 내각은 정부에 의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산업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본격적인 산업정책이 실행되지는 못했다. 프리마코프 정부는 1999년도 들어 국내의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조업 분야에 대해 부분적인 세제혜택을 주었으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표준인증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1999년 하반기에 등장한 뿌찐 내각은 프리마코프 내각과는 달리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구조의 형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을 선호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뿌찐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뿌찐 정부 하에서 이 같은 산업정책 기조의 변화는 1999년 후반기 이후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한 러시아 내수산업의 회복세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산업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1998년 하반기에서 1999년 상반기에 발생한 환율상승에 의해 러시아의 내수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데다, 경제위기가 불러온 소득저하에 따라 저가의 러시아 제조업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뿌찐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아직 구체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뿌찐은 취임 후 조각에서 개혁성향의 카샤노프(Mikhayl Kasyanov)를 총리로 임명하고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전략연구센터 소장 그레프(German Gref)를 경제개발 및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역시 개혁파 경제학자인 일라리오노프(Illarionov)가 대통령 경제 담당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게르만 그라프에 의해 수립된 러시아 장기발전전략(2000-2010)은 크게 국가권력개혁과 경제개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라프 프로그램 에 의한 경제개혁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제1단계(2003년까지)에는 산업구조조정과 시장의 강화, 제2단계(2007)는 생산의 현대화와 경쟁력 획득, 제3단계(2010년까지)에는 부단한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경제개혁안에 깔린 기조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국가기능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권력 강화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미 실행되고 있으나 경제개혁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카시아노프와 그레프 등 핵심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개혁의 강도와 폭 등 구체적 전략에 있어 견해차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말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할 때 그의 신국가주의 노선은 우선은 대외정책에서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친 서방 일변도에서 전환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뒤이은 핵 강국의 위상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북한 등 과거 사회주의 동맹국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제동을 걸려고 할 것이다. 협력 및 제휴 대상에는 독일 등 서유럽 국도 포함되며 뿌찐의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이 독일이었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통해 얻은 대외적 레버리지의 증대라는 외교적 자산을 뿌찐은 가능한 한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대내적 측면에서도 뿌찐은 팽배한 민족주의적인 정서와 전례 없는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확고한 권력우위를 제도화할 것이다. 그간 구소련 말기부터 시작된 소연방의 해체 그리고 옐친시대에 들어 와 체첸 사태에서와 같은 지방의 분권과 자치를 뛰어 넘은 할 거와 독립 움직임 등 최근까지 러시아의 역사는 국가해체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체첸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이 된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국가 해체 과정을 역전시켜 국가를 재통합(reintegration)하고 러시아를

Collection @ chosun

새로운 국가로 건설(nation building)하는 것이다.

그에게 가장 힘든 과제는 구소련 이래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아직 구체적 경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지난 정권이 남겨준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 하나는 체제전환 초기에서와 같이 충격요법식의 단순한 정책으로서는 러시아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교훈이다. 두 번째는 옐친 말기에서와 같이 권력 핵심부에까지 미친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실패할 뿐이라는 교훈이다. 개혁 노선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과 같은 보수회귀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의 경제 팀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프리마코프 정부보다는 물론 개혁적이면서 츄바이스와 체르노미르딘의 중간정도의 노선을 택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좌우이념 논쟁이나 보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뒤로 미루면서 부패척결과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의 기능 향상과 효율화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뿌찐이 만들어 가야 할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발전과제는 일차적으로는 체제전환을 마무리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통한 정체체제의 전환과 거시 경제적 안정화를 기초로 비화폐적 거래의 축소를 통한 시장화의 완성과 외부자 지배 확대를 통한 현금사유화의 완성으로 경제체제의 전환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2. 러시아의 경제성장 실태

경제개발부에서 잠정 집계한 '08.6월의 경제성장률은 6.5%로서 산업생산 부진에 따라 전월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8.0%이다. (IMF와 WB는 2008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7.5-8.0%로 전망한다. 러시아 정부 전망치: 7.6%이다.)

'08.6월의 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예상외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02.11월의 0.8% 이래 최저치의 0.9% 성장에 그쳤으며,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p 하락한 5.8%를 기록하였다. 6월의 산업생산 부진은 제조업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인바,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 2008 축구경기에서 러시아 선전으로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조업시간이 단축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3.0%p 감소한 8.4%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광업과 전기 · 가스 · 수자원생산은 각각 0.5%, 4.1%성장에 그치면서 연초 이래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11>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지표

(단위: %, 억 루블)

구분 (전년 동기 대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6
GDP 성장률	7.3	7.1	6.4	7.4	8.1	8.0
GDP	132,852	167,788	216,650	267,811	329,874	188,460
산업생산 성장률	-	8.3	4.0	6.3	6.3	5.8

주: 잠정치

Collection @ chosun

자료출처: 통계청, Economic Expert Group(http://www.nso.go.kr), 2008

농업부문의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4.0% 대비 0.3%p 증가한 4.3%이다.

<표 3-12> 업종별 성장률 지표

구분 (전년 동기 대비,%)	2004	2005	2006	2007	2007.1-6	2008.1-6
산업생산 성장률	**7.3**	**4.0**	**6.3**	**6.3**	**7.1**	**5.8**
광업	6.5	1.3	2.5	1.9	3.0	0.5
에너지	7.5	1.8	2.5	1.9	2.8	0.1
비에너지	6.5	△3.2	2.5	1.6	5.0	2.9
제조업	**9.2**	**5.7**	**8.3**	**9.3**	**11.4**	**8.4**
음식료품	3.0	4.4	7.0	6.1	7.3	5.0
섬유	△6.4	△1.5	12.1	△0.3	0.6	2.1
피혁 · 제화	△2.8	△2.7	22.2	△0.1	8.4	7.6
목재가공	3.0	4.5	3.6	6.2	3.8	13.3
펄프 · 제지	3.9	1.2	7.0	9.0	8.2	6.9
석유제품	2.2	5.4	7.1	2.7	4.5	3.3
화학	4.6	2.6	4.8	6.1	6.7	3.4
고무 · 플라스틱	0.4	5.5	21.7	23.0	14.1	15.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6.1	3.5	15.7	10.8	15.2	8.9
금속	2.7	5.7	9.8	2.0	4.3	2.0
기계	19.5	△0.1	9.4	19.3	25.8	10.4
전기 · 광학	33.9	20.7	16.3	12.8	19.2	△7.7
운송장비(자동차)	11.7	6.0	3.9	15.9	15.0	16.8
기타	1.5	0.7	12.2	5.1	6.2	13.8
전기·가스·수자원생산	**0.1**	**1.2**	**4.9**	**△0.2**	**△3.8**	**4.1**
농업생산 성장률	**1.6**	**2.0**	**2.8**	**3.3**	**4.0**	**4.3**

출처: 통계청(http://www.nso.go.kr), 2008

기타 성장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이 2/4분기에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

Collection @ chosun

이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1/4분기 (28.9%)에 못 미치는 22.4%에 그쳤고, 고정자본투자도 상반기 16.9% 성장에 그치면서 1/4분기 20.2% 대비 3.3%p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소매거래량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10% 중반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질가처분소득은 2/4분기 들어 주춤하면서 1/4분기 대비 1.3%p 하락한 8.1% 성장률을 기록한다.

'08년 상반기 중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명목임금이 28.7%, 실질임금이 13.0% 각각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중 평균임금은 16,202루블(685 달러), 6월 평균임금은 17,808루블(753 달러)이다. '08.6월말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총인구의 53%인 7,550만 명이며, 실업자 수는 전 월말 대비 10만 명 감소한 470만 명으로서 실업률은 6.2%이다.

<표 3-13> 러시아 실업률 지표

구분 (전년 동기 대비,%)	2004	2005	2006	2007	2007.1-6	2008.1-6
건설물량 증가율	10.1	10.5	15.7	18.2	19.9	22.4
교통량 증가율	6.3	2.5	2.2	2.2	2.9	4.0
소매거래량 증가율	12.5	12.8	13.0	15.2	15.3	15.2
(식료품)	10.4	(10.8)	(10.2)	(12.3)	(13.0)	(8.3)
(비식료품)	10.4	(14.7)	(15.6)	(17.6)	(17.3)	(21.2)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10.9	10.7	13.5	21.1	23.7	16.9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	8.4	11.1	10.0	10.4	9.5	8.1
평균임금(루블)	6,832	8,555	10,726	13,518	12,439	16,202
임금상승률(명목)	23.0	26.9	24.5	26.7	26.6	28.7
임금상승률(실질)	10.9	12.6	13.5	16.2	17.4	13.0
실업률(기말)	8.5	7.7	6.9	6.1	7.3	6.2
실업자 수(천명)	6,187	5,660	5,149	4,570	5,400	4,700
등록실업자수(천명)	1,920	1,830	1,742	1,553	1,744	1,332

출처: 통계청(http://www.nso.go.kr), 2008

물가

'08.6월의 소비자물가는 전 월말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15.1% 상승

dCollection @ chosun

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 연말 기준 1-6월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8.7%로서 전년 동기 대비 3.9%p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 현재 러 중앙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인 11.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바 이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1-6월간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이 11.4%, 비식료품이 4.4%, 서비스 요금이 10.8% 상승하였다.

'08.6월의 생산자물가는 전 월말 대비 4.9%, 전년 동월 대비 28.1% 상승하였으며 전 연말 기준 1-6월간 누적 생산자물가는 17.0%로서 전년 동기 대비 2.4%p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1-6월간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광업 17.0%, 제조업 16.2%, 전기 · 가스 · 수자원 18.0%이다.

<표 3-14> 러시아의 물가현황

(단위: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2004	2005	2006	2007	2007.1-6	2008.1-6
소비자물가	11.7	10.9	9.0	11.9	4.0	6.3
식료품	12.3	9.6	8.7	15.6	3.3	8.0
비식료품	7.4	6.4	6.0	6.5	1.5	2.9
서비스	17.7	21.0	13.9	13.3	8.6	8.5
생산자물가	28.8	13.4	10.4	25.1	14.6	17.0
광업	64.7	31.0	1.6	52.3	32.9	18.3
제조업	21.5	8.1	13.3	17.9	8.3	16.2
전기 · 가스 · 수자원	12.5	12.6	10.3	13.3	14.6	18.0

출처: 통계청(http://www.nso.go.kr), 2008

수출입 및 국제수지

'08.1-5월의 러시아 대외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한 3,034억 달러이다. 수출은 1,938억 달러 (증가율 50.7%), 수입은 1,097억 달러 (증가율 42.5%)로서 84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폭

dCollection @ chosun

은 전년 동기 대비 63.0% 증가한 수준이다.

통관기준으로는 동 기간 중 수출 1,911억 달러 (증가율 49.6%), 수입 1,011억 달러 (증가율 48.5%)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액 중 비CIS 국가 비중은 49.1%(1,618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은 연료 · 에너지 72.7%, 금속 및 관련제품 12.3%, 화학제품 5.6% 수준이다.

<표 3-15> 러시아의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1-6
경상수지	601	842	945	766	370
무역수지	871.5	1,182.7	1,392.3	1,321.2	841.2
수출(국제수지기준)	1,834.5	2,435.7	3,039.3	3,551.8	1,937.8
(증가율)	(35.0)	(32.9)	(24.7)	(16.9)	(50.7)
수입(국제수지기준)	963.1	1,253.0	1,646.9	2,230.6	1,096.6
(증가율)	(26.6)	(28.7)	(31.3)	(35.4)	(42.5)
수출(통관기준)	1,816.6	2,412.4	3,014.4	3,524.7	1,910.7
수입(통관기준)	755.5	985.8	1,378.1	1,997.1	1,011.3

주: 1/4분기 실적

출처: 통계청(http://www.nso.go.kr), 2008

외환 및 금융시장

'08.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금 포함)는 6월에 229억 달러, 1-6월간 904억 달러 증가하면서 5,6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환보유고중 보유외환(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국정부, 발행채권)은 4,596억 달러이며, 이외에 IMF 포지션 3.9억 달러, 금 138억 달러, 기타 자산 945억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표 3-16>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지표

(단위: 억 달러)

dCollection @ chosun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외환보유고(연말기준)	769.4	1,245.4	1,822.4	3,037.3	4,763.9	5,682.9
(금 포함)	731.8	1,208.1	1,758.9	2,955.7	4,643.8	5,545.0
(금 제외)						

출처: 중앙은행(http://www.cbr.ru), 2008

명목환율 기준 '08.6월의 달러대비 루블화 평균 환율은 전 연말에 비하여 3.9% 절상된 23.64 루블, 유로화대비 환율은 2.7% 절하된 36.80 루블로서,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환율의 경우 달러, 유로 대비 각각 8.5%, 3.4% 절상되었으며, 교역조건까지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은 3.3% 절상된다.

<표 3-17> 환율변화지표

(루블,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명목환율[43]	루블/달러	29.44	27.92	28.81	26.29	24.57	23.64
	루블/유로	-	37.34	34.16	34.73.	35.80	36.80
명목환율 절상률[44]	달러대비	8.1	5.4	-3.1	9.6	7.0	3.9
	유로대비	-	-	9.3	-1.7	-3.0	-2.7
실질환율 절상률	달러대비	18.9	14.0	3.9	16.7	15.0	8.5
	유로대비	-	6.0	18.8	5.6	5.8	3.4
실질실효환율 절상률		4.1	4.7	10.5	7.4	5.1	3.3

출처: 중앙은행(http://www.cbr.ru), 2008

'08.1/4분기 중 234억 달러가 순유출 되었으나, 2/4분기에 357억 달러가 순유입 되면서 상반기 중 순유입 액은 123억 달러를 기록한다.

43) 2003-2007년 12월 평균 환율
44) (+)는 루블화 절상, (-)은 루블화 절하; 전 연말 대비

dCollection @ chosun

<표 3-18> 자본순유입지표

(단위: 억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6
자본 순유입	△19	△84	11	416	823	123

출처: 중앙은행(http://www.cbr.ru), 2008

'08.6월의 은행 간 신용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3.7%로서 안정적 모습을 보였으나, 중앙은행 채권금리(OBR)는 전월대비 0.4%p 상승한 5.3%를 기록하였다. 예금금리(요구불예금 제외, 만기 1년 이하)는 전월대비 0.5%p,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3%p 상승하면서 각각 7.4%, 11.3%를 기록하였다.

<표 3-19> 2008년 상반기 금융금리 변화지표

(단위: 가중평균금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은행 간 신용금리(O/N)	3.8	3.3	2.7	3.4	4.4	3.7
중앙은행채권 금리	5.4	3.8	3.9	4.5	4.8	5.3
예금금리 (요구불예금 제외)	4.5 (10.9)	3.8 (9.3)	4.0 (8.7)	4.1 (7.8)	5.1 (7.2)	5.6 (7.4)
대출금리	13.0	11.4	10.7	10.5	10.0	11.3

출처: 중앙은행(http://www.cbr.ru), 2008

'08.6월 중 주식시장은 RTS지수가 전 월말 대비 6.36% 하락, 전년 동월대비 21.38% 상승한 2,303.34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총 52개 종목 중 19개가 상승하고 33개가 하락하였으며 화학업종이 상승한 반면 석유 · 가스,

dCollection @ chosun

은행 · 금융업종이 하락하였다. 6월말 RTS 시가총액 중 석유 · 가스 부문 비중이 53.8%로서 절대적이며, 은행 · 금융 17.3%, 금속 16.0% 수준이다.

<표 3-20> RTS 지수 대비지표

(단위: 포인트)

구분 기말기준, '95.11.1=1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RTS 지수 (종가기준)	567.3	614.1	1,125.6	1,921.9	2,290.5	2,303.3

출처: RTS (증권거래소)(http://www.rts.ru), 2008

재정

'08.1-6월간 러시아 연방세입은 4조 3,689억 루블 (약 1,848억 달러), 연방세출은 3조 379억 루블 (약 1,28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1조 3,311억 루블 (약 5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08.6월 말에 적립기금(Reserve Fund)은 3조 565억 루블 (약 1,303억 달러), 국민복지기금(National Welfare Fund)은 7,706억 루블 (약 329억 달러)이 적립된다.

<표 3-21> 연도별 재정변화 지표

(단위: 억 루블,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6
연방세입 (GDP 대비) 조세수입	25,831 (19.4) 23,942	34,289 (20.5) 31,402	51,251 (23.7) 31,881*	62,763 (23.6) 36,730	77,646 (23.9) 46,197	43,689 (23.2) 19,457
연방세출 (GDP 대비) 이자지출	23,549 (17.7) 2,209	26,989 (16.1) 2,047	35,122 (16.2) 2,084	42,813 (16.1) 1,691	59,822 (18.4) 1,421	30,379 (16.1) 668

dCollection @ chosun

(국내) (국외)	(451) (1,758)	(399) (1,649)	(534) (1,549)	(489) (1,193)	(-) (-)	(-) (-)
재정흑자 규모 (GDP 대비)	2,282 (2.8)	7,300 (4.4)	16,129 (705)	19,950 (7.5)	17,824 (5.5)	13,311 (7.1)

출처: 재무부, Economic Expert Group(http://www.inline.ru), 2008

*'05년부터 관세 (customs duties)를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조세수입 산정 대상에서 제외

최근 러시아경제의 안정과 성장기준은 2000년에 취임한 뿌찐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표현되는 '국가 자본주의 관리체제'하에 소수의 재벌총수들을 국가에 복종시킴으로써 대내 사회정치적 · 심리적 안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경제외교와 '친기업적 환경조성'에 주력한 뿌찐의 정책방향,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관료주의의 청산노력이 경제상황을 개선했다고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제4장 성장전략의 필요성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유형의 우위비교

제1절 환경적 요인에 따른 중국유형의 장단점

'08년 중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였다. 중국경제는 '03년 이후 줄곧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세계경기 침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시작하여 지난해 3분기에는 9.0%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최근의 급속한 경기하강 추세는 중국의 성장 동력인 수출둔화에 따른 것으로 중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8% 성장마저 위협하고 있어 중국 내부적으로도 위기위식이 팽배해 있다. 중국경제에서 '8% 성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8%를 유지해온 중국 경제성장률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고도성장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실업문제, 빈부격차, 지역불균형, 도농격차 등의 모순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중국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8% 성장'은 사회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인 셈이다. '09년은 중국이 어떻게 8% 성장을 유지할 것인 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표 4-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추이

(단위: %,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2010^{f}
G D P 성 장 율	10.1	10.4	11.6	11.9	9.1	6.0	7.2
재정수지 /G D P	-1.3	-1.2	-0.8	0.7	-0.1	-2.7	-1.9

Collection @ chosun

소비자물가상승률	3.9	1.8	1.5	4.8	5.9	0.0	2.5
경 상 수 지	687	1,608	2,353	3,718	4,299	3,576	2,993
상 품 수 지	590	1,342	2,177	3,154	3,525	3,226	2,662
수 출	5,934	7,625	9,697	12,200	14,359	13,409	13,595
수 입	5,344	6,283	7,519	9,046	10,834	10,183	10,933

자료: IMF(http://www.imf.org), 2008

'08년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긴축정책과 세계경기침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03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오면서 중국정부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와 성장제일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08년에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45], 종신고용을 포함한 노동계약법 시행,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우대 폐지 등 중국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장률의 일정부분 하락을 용인하면서 경제의 연착륙 및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 기조는 상반기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 억제, 성장유지'로 수정되었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세계경제 위축에 따라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급선회 하게 된다. 2008년 하반기 들어 중국의 주요 수출처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은 2008년 11월 전년 동월대비 2.2%, 전월 대비 19.2% 감소하였다. 이는 '01. 6월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감소세로 이에 따라 수출 의존적인 중국경제의 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표3-1, 3-2> 참조). '08년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긴축정책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추세에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라는 요인이 겹쳐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급격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책의 핵심은 내수(고정자산투자 및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다.

45) 달러화 대비 위안화는 2005년 초 이후 21%가 절상되었으며, '08년에만 약 7% 절상됨.

dCollection @ chosun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향후 2년간 4조 위안(약 5,882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1.8조 위안(약 2,647억 달러),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1조 위안(약 1,471억 달러)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07년 GDP대비 0.7%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면에서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양책 실시에 큰 부담이 없으며, 일정부분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경우 가전제품 구입, 보조금 지급, 거래세 인하 등 주택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판매증가율이 '07년 10%대에서 '08년 20%를 상회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출 둔화를 만회할 만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신 농촌 건설과 도시화 추진 등으로 내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하여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소비증대가 이루어 질 지는 미지수이다.

이 외에도 3,770개 품목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상향 조정, 위안화 환율관리 등의 수출지원 조치, 금리인하 등을 통한 지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 중국경제에 위기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나 몇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첫째, '08년 초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들어 진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이 '08. 4월 8.5%를 기록한 이후로 11월 2.9%까지 하락하여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둘째, 상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이다.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11월 중국의 상품수지 흑자는 역대 최고인 40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08년 전체로는 3,5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속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표 4-2>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주요조치사항

대 책	내 용
내수확대	•4조위안의경기부양책실시 - 2010년까지 집행, 순수 신규투자는 2조 5천억 위안으로 추정. 중앙정부가29.5%인 1.18조위안투입 - 1,000억 위안은 '08년 4분기 집행 - 철도, 도로 등 인프라투자 45%, 지진피해 복구 25%, 농촌기반시설9% 등 •농민의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 지급 (家电下乡) 확대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상향(2,000위안→2,500위안) •증권거래세 폐지 •생애 첫주택 구입 시(90㎡이하) 부동산 계약세(취득세)3~5%→1%로 인하, 자기 자금 부담 비율 완화(30%→20%), 지방정부의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등
수출 및 금융지원	•증치세 환급률 12월부터 상향조정: 3,770개 수출품목(전체 품목의 28%) •위안화 절상 억제 •국책은행을 통해 수출자금 등 지원 - 중국수출입은행의 치루이 자동차 지원(2조 위안)등 •중앙은행 금리인하 등 - 1년 만기 대출금리: '07. 12. 7.47% → '08. 12. 5.31% - 지급준비율 1.5~2.5% 인하(대형은행 15.5%, 중소형 은행13.5%)로 기업 대출 여력 확보

자료: 각종 언론자료 및 중국정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셋째, 비교적 안정된 외환시장이다.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등으로 '08년 외환보유액은 2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외채무도 '08년 말 3,982억 달러로 추정되어 절대규모는 큰 편이지만 GDP대비 9.4%수준이며, D.S.R(Debt Service Ratio)[46]도 1.7% 수준으로 외채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

Collection @ chosun

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최근 수년간 대규모로 유입된 핫머니의 급속한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유입자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유출자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08. 7월 외환등기제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인출한도 제한, 수출예수금의 인터넷 등기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월 외환관리국과 세무국은 '무역 등과 관련한 대외지불에 있어 세무 증명과 관련한 통지(关于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提交税务证明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하였다.[47] 상기 통지에는 '09. 1월부터 3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해외로 송금할 때 세무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자본통제를 강화, 자금의 급속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있어 해외로의 급속한 자금유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표 4-3> 중국의 외채관련 주요 지표

(단위: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2010^{f}
외환보유액	6,099	8,189	10,663	15,282	19,806	21,001	23,237
총외채잔액	2,475	2,816	3,228	3,501	3,929	3,671	3,891
D. S. R	3.3	3.0	2.4	2.1	1.7	1.8	1.6

자료: "中國의 主要經濟指標", 国家外汇管理局, 2008.12

46) 외채원리금상환부담율로서 연간 대외채무 상환액을 총수출로 나눈 수치임. 즉,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얼마만큼 외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건전성이 높음. 참고로 '08년 우리나라의 D.S.R.은 5.3%임.(www.viewswire.com 자료)

47) 国家外汇管理局(www.safe.gov.cn)

Collection @ chosun

제2절 환경적 요인에 따른 러시아유형의 장단점

2008년 러시아 경제는 상반기 최고의 호황과 8월 이후 끝없는 추락의 양극을 동시에 맛본 한해였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는 2000년 뿌찐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다. 특히 2008년 상반기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온 국제유가의 급등에 힘입어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8월 이후 그루지야와의 전쟁과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국제유가도 세계경기 침체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함에 따라 러시아경제는 급전직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주가 및 루블화가치의 폭락, 유동성 부족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한편,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량의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외환보유고도 급속히 감소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 인도 등 타 BRICS 국가들보다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연일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09년에도 러시아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제유가도 당분간 상승으로 반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경제의 조기 회복 여부는 세계경기의 회복과 유가 상승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의 모멘텀을 상실한 러시아경제가 2009년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1. 경제성장률 둔화세 전환

Collection @ chosun

2008년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지속, 세계경기 침체 본격화 및 유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경기호조에 힘입어 전년도 8.1% 보다 다소 낮은 6.7~6.8%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경제성장률	7.2	6.4	7.4	8.1	6.7~6.8	3.5~3.0

자료: "중국경제성장보고서", EIU, 2008.12

러시아 경제는 2003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는 러시아경제의 성장 동력인 유가의 급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오일 달러가 대량 유입되어 국내소비와 투자가 확대된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 세계에 걸쳐 원자재 확보전쟁이 일어나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8년 7월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분기별 성장률이 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9.5%, 8.5% 및 7.5%에 달했으며 러시아 정부도 2008년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당초 6.7%에서 7.6%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이 기간 중 러시아경제는 오히려 과열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인해 재원조달을 해외차입에 크게 의존하던 은행 및 기업의 외화차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이머징마켓 이탈이 시작됨에 따라 러시아 금융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8월초 그루지야와의 전쟁과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자금의 러시아시장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dCollection @ chosun

금융시장은 급격한 유동성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경제의 버팀목인 유가가 7월 중순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급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러시아경제는 급속히 둔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3/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2%로 둔화되고 4/4분기에는 2.6%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러시아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2.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과 루블화가치의 큰 폭 하락

러시아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9.0%를 크게 상회하는 14.1% 수준에 이르러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물가상승률은 고성장 지속과 함께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오일달러의 대량 유입,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본유입, 금융기관의 신용확대 등으로 통화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말 이후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08년에는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였으며 5월에는 월중 물가상승률이 15.1%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08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당초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refinancing rate)를 인상[48]하고 지급 준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9월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를 기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유동성공급 확대로 변경하고 지급준비율을 5.5%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4/4분기 이후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완화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공급 확대와 루블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률완화 효과를 감쇄시킴으로써 2008년 연중 물가상승률은

48)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월중 기준금리를 4회에 걸쳐 100bp 인상하고 개인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3회에 걸쳐 150bp 상향 조정하였음.

dCollection @ chosun

당초 목표 10.5%를 크게 상회하는 1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인플레이션(%)	10.9	12.7	9.7	9.0	14.1	11.7
달러환율(평균)	28.8	28.3	27.2	25.6	25.0	29.5
달러환율(기말)	27.7	28.8	26.3	24.5	28.8	30.6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http://www.cbr.ru), 2008

한편, 루블화가치는 2008년 7월까지는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와 수출호조 등으로 꾸준히 강세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7월말 기준 미 달러화 환율이 23.5를 기록하여 루블화가치가 연초 대비 4.1% 상승하였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규 차입이 어려워지고 대량의 자본유출[49]과 해외차입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달러수요가 크게 증가됨으로써 달러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7월초 배럴당 137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하던 우랄산 유가도 11월말 이후에는 최고치의 1/3 수준인 50달러 이하로 급락함으로써 오일달러 유입도 크게 감소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9월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규모의 달러를 공급하여 왔으나 12월 15일자 환율이 달러당 27.8루블로 7월말 대비 약 18.6% 상승하는 등 루블화의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결국 달러공급을 통한 환율방어 정책은 외환보유고의 감소만 가져왔을 뿐 환율방어에는 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러시아 정부는 11월 이후에는 환율방어보다는 환율변동 폭 확대11)를 통해 루블화가치의 하락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루블화가치는 더욱 떨어져 연말에는 미 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약 17.5% 하락한 달러당 28.8루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9) 8월 이후 순자본 유출(capital outflow) 규모 : 830억 달러(8월 70억 달러, 9월 260억 달러, 10월 500억 달러)

Collection @ chosun

3. 상반기의 고유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었으나 4/4분기 이후 감소 추세

2008년도 경상수지는 상반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4/4분기 이후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폭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폭이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수출의 약 2/3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가격 상승에 힘입었다. 특히, 2008년에는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사상 유래 없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여 1-9월중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평균 107.6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68.2% 상승하였다. 그 결과 동 기간 중 수출이 3,74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52.9% 증가함으로써 상품수지도 전년 동기 대비 68.5% 증가한 1,533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상품수지의 흑자 확대에 힘입어 2008년 경상수지는 연간 약 680억 달러에 이르는 서비스 및 소득 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1,10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4분기 이후에는 우랄산 유가가 10월 및 11월에 각각 배럴당 59.8 달러 및 46.4달러로 급락하고 12월에 들어서는 40달러 수준에서 거래됨으로써 수출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표 4-6>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경 상 수 지	590	833	945	783	1,108	148
상 품 수 지	858	1,183	1,392	1,320	1,792	939
경상수지/GDP	10.0	10.9	9.6	6.1	6.7	1.0

Collection @ chosun

자료: EIU(http://www.eiu.com), 2008

4. 금융시장불안 지속과 외환보유고의 감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2007년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용경색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금융시장은 2008년 상반기까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은행 및 기업의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함으로써 오일달러가 대량 유입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6월 이후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세계투자 자본들이 리스크가 높은 이머징마켓으로부터 안전한 달러자산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그동안 급등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도 7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루지야와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의 해외자본이 급속도로 러시아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급락, 환율 및 금리 급등, 유동성 부족 등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은행 및 기업의 외채상환자금 지원 등을 위해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석유수출세 인하 및 법인세 4% 인하 등의 감세조치를 단행하는 등 금융시장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었다. 특히 루블화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수백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특히 환율방어를 위해 9-10월 중에만 575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였음에도 민간부문의 달러수요 증가와 추가적인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루블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오히려 외환보유고만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8월초 5,9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외환보유고는 11월말에는 4,550억 달러를 기록하여 8월 이후 4개월 만에 약

Collection @ chosun

24%, 1,430억 달러 감소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 주가지수(RTS)는 5월 최고치 대비 약 70%이상 하락한 상태이고 루블화가치도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본격 침체와 국제유가의 급락세로 인해 금융시장은 당분간 불안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제5장 결론

중국정부의 '09년 경제운용 방향은 지난 12. 10일 폐막된 경제공작회의(经济工作会议)에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정부는 '① 적극적인 재정정책,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조정 강화, ② 농촌경제의 발전을 통한 농민의 수입증대 ③ 질적 성장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제(산업)구조의 조정 추진 ④ 개혁개방심화 ⑤ 사회보장 제도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정 유지' 등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경제부분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위해 성장률 유지(保成长), 내수 확대(扩内需), 산업구조 개편(调结构)을 '09년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50].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내수 부양을 통해 극복하고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중국정부는 8% 성장률 달성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위주의 경제구조가 쉽게 바뀌기 어렵고,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부양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성장률은 8%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는 등 목표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경기부양 관련투자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1.8~3.0%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정부의 부양책이 제대로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8.0% 성장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정 및 통화정책은 경기부양과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공격적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고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다. 특히 금리의 경우 미국이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정책 면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0) 中国经济逆击2009, 中国共产党新闻网

Collection @ chosun

현재 중국정부는 수출증가세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 절하를 내심 원하고 있으나,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 및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과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절하도 쉽지 않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当前金融促进经济发展的若干意见)'을 통해 홍콩 및 주변국과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러시아 등과 양국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데 합의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기업 인수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저우추취(走出去)'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국수출입은행은 치루이(奇瑞) 자동차에 수출과 해외투자 목적으로 2조 위안 지원을 발표하였고, 중국의 창안(长安)자동차가 GM산하의 볼보(Volvo) 인수를 검토하는 등 이번 경제위기를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또한, M&A 등을 통해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들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과거에 상업은행들의 M&A관련 대출을 금지해 왔는데,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银行业管理监督委员会)는 '08.12월 '상업은행의 M&A 대출리스크 관리에 대한 통지(商业银行并购贷款风险管理指引)'를 발표, 상업은행의 M&A 관련 대출을 허용 하였다. 상기 통지는 M&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M&A를 통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성장률 둔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류, 장난감 등 분야의 증치세 환급율 인상, 금융지원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의 조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악화된 경제사정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dCollection @ chosun

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중국경제는 '8%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해가 되는 동시에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반면 2009년 러시아경제는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되고 3/4분기 이후에나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경기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가서야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 12월 이후 배럴당 4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제유가도 당분간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 에너지 기업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러시아경제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가 하락이라는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2009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불안 지속으로 여신이 축소되고 실업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투자와 내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약세를 면치 못함으로써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여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6.7%에서 2009년에는 약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정부수입도 감소되어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수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로존 경제가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이 대폭 감소되고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자본의 재유입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 금융시장에서는 자본유입이 크지 않은 가운데 자본유출이 지속됨으로써 달러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블화의 약세로 연말 환율이 달러 당 30.6루블까지 하락되고, 정부의 기업 및 은

Collection @ chosun

행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외환보유고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 야기했던 내용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사회주의나라이며, 경제면에서는 두 나라 계속 고속경제성장을 유지하였지만 경제위기 발생 후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타난 영향이 크게 다른 이유가 바로 러시아는 지름길을, 중국은 단계적 접근을 택하기 때문이었다. 골드만 삭스 인터네셔널 (Goldman Sachs International)의 부회장이자 본 토론의 사회자인 호메츠 (Robert D Hormats)는 러시아와 중국은 개혁의 도상에서 정치적 구조조정과 경제 혁신 중 어느 쪽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유용성은 후진사회주의 체제가 서구자본주의 모델을 적용할 때 유이해야 될 점은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받은 타격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왜 이 같은 타격을 받았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받은 타격의 차이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본고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보다 러시아의 타격이 훨씬 높았다. 이 같은 논증이 세계화 수용상의 유의할 점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뿌찐대통령 집권 후에 고속성장을 결과하였지만 단기간에 과도한 외국자금 도입으로 인하여 세계적 범주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반면에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 약 2조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며, 내수증진이 가능한 조건 속에서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더욱이 중국은 해외 장기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국의 자본을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동원함에 따라 러시아와는 대조적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20 여 년 간의 개혁기간 동안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에 의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 인해 국민 1인당 구매력을 4배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데 비해 러시아는 단기성 투기자본의 비중 과다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 1인당 구매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은 이념적 4대원칙에 의한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맑스 ·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견지함으로서 개혁 기간 동안 정치 안정을 도모할

dCollection @ chosun

수 있었다. 따라서 부강한 중국건설을 우선시한 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였으며, 사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정부는 통화 규제를 통하여 자본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일정 선까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거의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서 기업 활동의 자유보장 및 다당제 채택을 통한 자유의 확대로 시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결제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인한 체계적 경제관리를 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한 시장기능의 외곡이 자율적이며, 효과적 발전을 저해시켰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 수백만 인민을 가난과 기아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개혁기간 동안 국민의 빈곤 율이 50%까지 치솟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중국은 직업창출과 기업창업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천연 자원과 물물교환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로 전환한 점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자주노선의 필요성 제기이기도 한다. 특히 과거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사회주의나라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두 나라 공히 고속성장을 지속 및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경제개혁 및 경제위기 대처방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인 결과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신아사, 2009.

김시중, “중국경제 얼마나 독특한가?”, 『경제학 연구』, 2005.

김화섭, 김학기, 하병기, 『동북아시대의 해외투자전략』, 산업연구원, 2000.

김학기, 『러시아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대러 경제협력방향』, 산업연구원, 1998.

김학기, 박용석, 『러시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산업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1995.

동북아팀(KOTRA), "중국경제 2005년 5대 사건과 2006년 5대 과제", 『기획조사 05-059 』, 2005. 12. 26.

박제훈,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회 시리즈 0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백준기, “푸찐 정부의 현실주의 외교노선과 강한 국가”, 『중소연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0.

심성섭, 김학기, 『러시아의 산업과 한•러 산업협력 방안』, 산업연구원, 1997.

양평섭, “급속히 커지는 대중국 무역존도”,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이창제, “러시아 경제체제전환 시도에 대한 평가”, 『러시아 새 질서의 모색』, 서울: 열신책들, 1994.

이승신, “2006년 중국경제 발전현황 및 평가”, 『중국경제 동향 보고』, 2007.

이승신, “2006년 중국경제 발전현황 및 평가”,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7.

이철원, “러시아의 최근 경제현황”, 『지역경제』, 1995.

정여천, 『한 · 러 경제교류 10년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조선일보, “中 3대 혁명된 개혁개방 정책”, 2008.

민족통일연구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1997.

Collection @ chosun

[외국문 자료]

Cochrane. J. H. and Ickes. B. A, "Macroeconomics in Russia, E. D. Lazear",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Hoover Institute Press, 1995.

Gaidar Yegor & Pohl Karl Otto, *Russian Reform/International Money*,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Hanson. P, "What Sort of Capitalism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9, No. 1, 1997.

Peter Rutland, "Another Lost Year for the Economy", *Transition*, No. 7, February, 1997.

Moscow News, No. 35, September 8-14, 1995.

Vladimir Kollantai,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London: Macmillian, 1995.

Collection @ chosun

[Internet Web Site]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http:// www.eastasianstudies.org)

통계청 (http://www.nso.go.kr)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중국인민은행 (http://www.pbc.gov.cn)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http://www.safe.gov.cn)

신화사 (http://www.Dachaja.net)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러시아 중앙은행 (http://www.cbr.ru)

러시아 증권거래소(RTS) (http://www.rts.ru)

러시아연방재무부 (http://www.inline.ru)

IMF (http://www.imf.org)

EIU (http://www.eiu.com)

중국동향분석사이트 (www.viewswire.com)

데일리 차이나 (http://www.dailychina.net)

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러시아학과	학 번	2006770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후 홍 염 한문: 侯 紅 艶 영문: Hou Hong Yan				
주 소	전남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295번지				
연락처	E-MAIL : hongyan0704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비교연구 영어 : Economic development patterns in China and Russia on comparative studi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9년 8월

저작자: 후 홍 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